

서해생신식

見聞許  
由之洗  
耳事巢  
父使牛  
飲

十







서가풍경

## 시와 무용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군무의 현장

시인 김영태씨의 서가

“내 집필실은 / 고가도로 옆에 매달려 있다... / 원고지 한장 떨어져나간다 / 제 살을 먹고 있는 거나 같다... / 물거품이 되었지만 / 가끔 그 물거품을 아껴가면서”(《금환빌딩 302호》 중)

시인 김영태씨(64)의 작업실 겸 서재는 시에 나온대로 동송동 연우무대 맞은 편에 있는 금환빌딩 302호다. 일곱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에서 그는 시를 쓰고 무용평론을 쓰고, 때로 그림을 그린다.

문을 열면 먼저 옷걸이에 기우뚱하게 걸려 있는 병거지 모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역시 기우뚱하

게 앉아 있는 시인. 아마 문예회관 대극장 가열 123번 좌석(극장측에서 마련해 준 그의 지정석)에 앉아 있는 그의 포드도 그럴 것이다. 원고지들로 어지러운 책상 옆에 무용서적들이 가득 찬 책꽂이가 서 있다. 《춤과 삶의 문화》 《전환기의 무용 예술》 《후기 현대 춤의 미학과 동향》이 제각각 다른 포드로서 있다. 한편에는 그가 쓴 무용평론집들이 차지하고 있다. 《막간》 《남천도 조금》 《저녁의 코펠리아》. 서로 기대 있는 것도 있고, 한편에서 독무를 추고 있는 것도 있다.

“요즘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 책들을, 나의 신부(新婦)들을 보내는 마음도 / 물론 그 마음 안에는 / 내 삶의 정리도 들어 있다”(《로마 수첩》 중)

곧 그의 정든 신부들이 상명여대에서 마련해 준, 그의 이름 석자가 붙은 춤 자료관으로 이사 간다.

“내가 줄 것은 몸과 마음뿐이다. 내가 가진 것은 여러개의 이쁜 접시와 찻대, 옛날 고리 반달이, 테라코타 작품 몇 개뿐이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그의 일곱평 작업실에는 시와 그림이 마주보며 남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최갑수 기자

